지난달 25일 그리스 니콜레이카에서 열린 세계전통춤 페스티벌에 참가한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이 화려한 무당춤을 선보이고 있다.

"꼬레 원더풀~ 한국춤에 반했어요"

그리스 세계 전통춤 페스티벌 9개국 1,000여명 참가

광주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 춤사위에 관객들 열광

'꼬레 원더풀.'

지난달 25~30일까지 옥빛 물색이 아름다운 그리스 이오니아 해변 마을 에이지오시 니콜레이카에서 열린 제5회 그리스 세계 전통춤 페스티벌(5th World Festival of Folk-Dancing Group) 참가팀 중 가장 많은 갈채를 받은 것은 한국팀이었다.

조선대 김미숙 교수가 이끄는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모든 참가팀들이 무대에 오른 개막식에서 부채춤을 선보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 등 같은 유럽권의 춤을 많이 접했던 것과 달리, 동양의 춤, 특히 한국의 춤을 난생 처음 접한 관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공연을 지켜봤고, 공연이 끝나자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은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부채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낼 때는 객석에서 탄성과 플래쉬 세례가 터졌고, 공연 후에는 '원더풀'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한국을 비롯, 이집트·우크라이나·러시아·그루지아·브라질·불가리아·세르비아 등 8개국이 참여했고 주최국인 그리스에서는 20여개 그룹이 참가하는 등 모두 9개국 1천여명이 무대에 올랐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국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해외 교류사업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지난해 터키에서 열린 제22회 부르사 세계전통춤 페스티벌에도 참가, 한국춤의 아름다움을 알렸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모두 4차례의 공연을 가졌다.

개막식에 이어 26일에는 다양한 한국춤을 선보였다. 의재 허백련의 삶을 그린 창작무용 가운데 '매난국죽'과 '국화춤', 남자 독무 등을 무대에 올렸고, 형형색색의 의상과 경쾌한 몸동작이 돋보인 흥겨운 무당춤은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27일에는 주행사장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유명 휴양 도시 칼라브리타에서도 공연을 가졌다. '스키 도시'로 유명한 칼라브리타의 그리스정교 성당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입춤'을 선보여 많은 갈채를 받았고, 노란색 부채와 의상을 갈아입고 부채춤 등 다채로운 한국무용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공연이 끝난 후 칼라브리타 행사 관계자가 그리스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공연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등 한국무용을 처음 접한 지역민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니콜레이카 문화교육 위원회 '이오네스'(위원장 스타우로 폴로스 아시마키)가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은 6개 도시에서 열렸으며 지난 4회 행사까지 300여개 단체, 6천여명이 다녀갔다. 이번 공연은 페스티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좀 더 많은 관객들에 광주 무용의 진수를 전파할 수 없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한국춤의 첫 전령사'라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30명 이상이 참여한 데 비해 한국은 인원수가 13명에 그치고 남자무용수가 1명에 불과했던 점도 조금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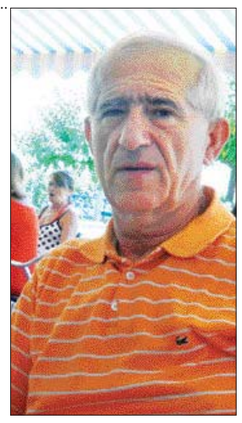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세계민속예술위원회 한스 홀츠 사무국장은 "규모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참가팀 숫자나 선정이 적정해 좋은 축제의 조건을 갖췄다"며 "특히 최상의 여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숙소 등의 문제에 신경 쓴 점도 훌륭했다"고 말했다.

아테네에서 휴양차 니콜레이카를 방문했다 공연을 관람한 일렉트라 스카페토라치(여·60)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무용을 봤는데 너무 멋졌다"며 "특히 부채춤과 국화춤은 춤도 아름답지만 화려한 의상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스=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페스티벌 주최 아시마키 위원장

"한국춤 인상적 내년에도 꼭 소개하고 싶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춤을 처음 접했어요. 공연 실황이 TV로 방영된 후 사무국에 한국춤이 좋았다는 전화도 걸려왔죠. 음악과 춤, 의상 등이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5회 그리스 세계 전통춤 페스티벌을 주최한 그리스 니콜레이카 문화교육 위원회 '이오네스'의 스타우로 폴로스 아시마키(60)는 "한국춤을 내년에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스 사람에들에게는 춤이 참 중요합니다. 춤을 통해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축제의 매력이죠. 지역민들의 문화적 체험을 위해 힘들지만 행사를 꾸려가고 있어요."

지역 유명 경제인 출신인 아시마키씨는 초청팀 선정, 숙소 확보, 폐막까지 동분서주하며 거의 모든 행사를 챙긴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딸과 부인이 통역과 진행자로 참여하는 등 온가족이 문화봉사에 나섰다.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역민들이 내는 기부금과 스폰서를 통해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비로 메우는 터라 제일 힘든 게 예산확보다.

아시마키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올해 축제를 보고 후원자가 나타나 한숨 돌리게 됐다"며 "곧바로 내년 행사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닭 바람타고 하늘을 날다

옥과미술관 10월 8일까지 '바람…'전

옥과미술관은 오는 8일~10월8일까지 '바람을 타고 가다'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곽민지, 김영호, 빅인환, 성태훈, 이창희, 임진성, 지요상, 최순녕, 최창봉, 한아림씨가 참여한다.

성태훈씨는 이번 전시에서 단조롭게 표현된 매화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닭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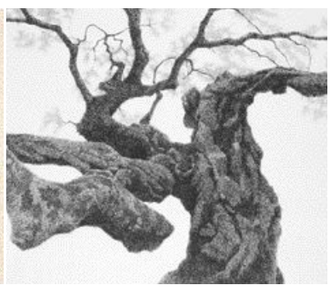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축 폐자재를 배경으로 매화를 그려 넣은 뒤 정밀하게 표현된 닭을 등장시켰다. 매화는 잿빛과 초록색으로 표현돼 화려한 색의 닭과 대비를 이룬다.

또 곽민지씨는 전통 문양에 알록달록한 색을 입힌 'The Wall'을 전시하고, 김영호씨는 멋의 자연스러운 번짐을 강조한 '머무르다'를 선보인다.

한편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에 위치한 옥과미술관은 아산 조방원 화백이 평생 수집한 6천800여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문의 061-363-727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성태훈 작 '날아라 닭'


이창희 작 '영'

김환기 예술조명 국제미술제전

31일까지 신안 '스케치여행'

신안군은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는 국제미술제전을 마련한다. 국제미술제전은 참여 작가들이 신안 지역의 섬을 돌며 작품을 그린 뒤 이를 전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서양화가 정창화, 나현, 신흥우, 최근일, 전정호씨와 사진분야 강홍구, 이정록씨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또 독일의 스테파니 등 유럽작가 10여명도 초청됐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4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31일까지 스케치 여행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고, 오는 12월 서울 갤러리 이앙과 독일 베를린의 갤러리 LOOP에서 선보이게 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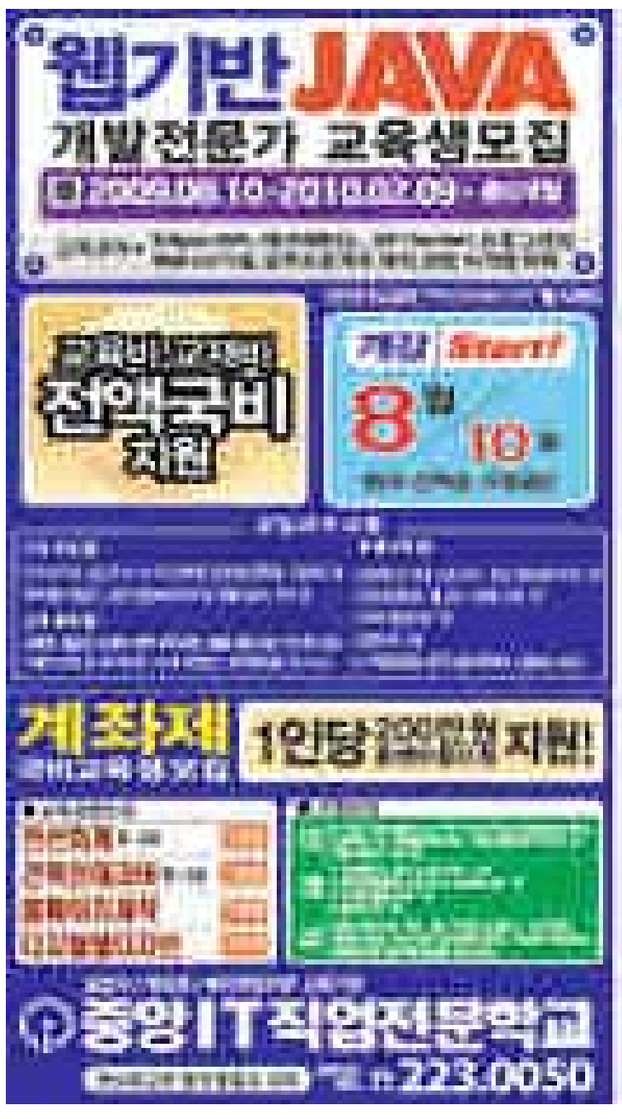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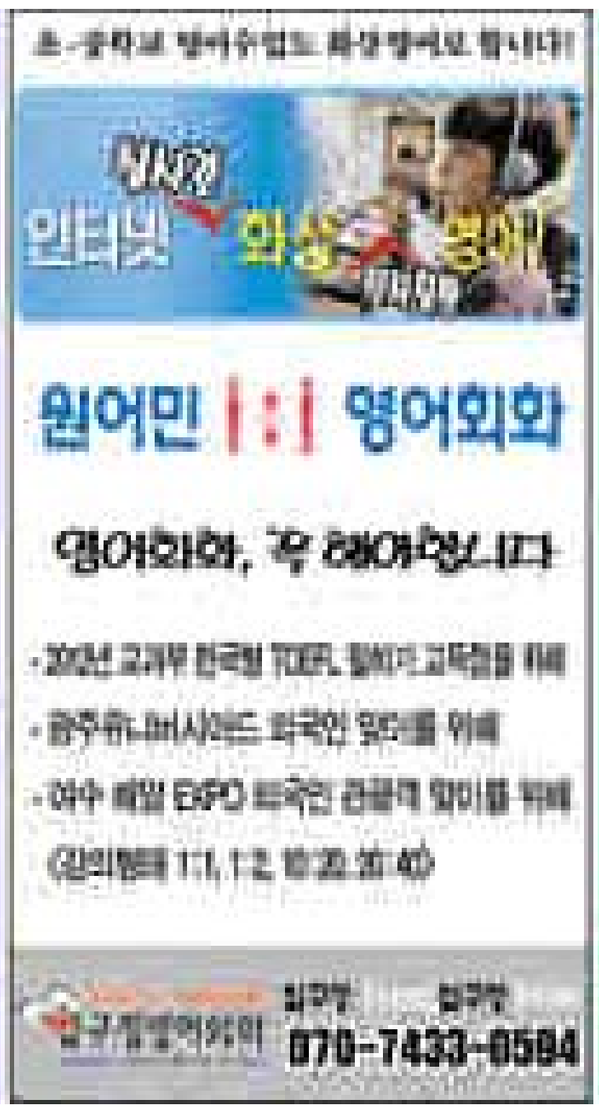
카라얀의 클래식

스카이라이프 방송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지휘자 카라얀〈사진〉이 설립한 클래식 전문방송 '유니텔 클래시카 HD'를 지난 1일부터 방송하기 시작했다.

'보는 음악(Music to Watch)'이라는 모토 아래 지휘자 카라얀이 설립한 '유니텔 클래시카 HD'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오페라, 콘서트, 발레를 방영하는 전문 채널.

유럽 최대의 음악축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매년 독점 제작해 공급하고,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스트리아 빈국립오페라극장 등 유럽의 주요 콘서트홀 공연 실황 등을 편성한다.

또한, 세계 3대 테너의 베를린 공연 실황, 카라얀의 주요 공연 실황을 담은 '카라얀 스페셜'등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틀어준다.

/연합뉴스